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분석

HEADLINE :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지만,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쉬웠다.

1. 출제 경향

가. 총평

2019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은 듣기 17문항, 읽기 28문항으로 출제되었으며, 지난 6월과 9월에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서 제시한 출제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달성 정도’와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네 영역에서 다양한 소재의 글과 대화가 제시되었고, 영어로 소통하는 데 필요한 어휘 및 문법 능력, 사실적 이해력, 추론적 이해력, 종합적 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들이 고루 출제되었다. EBS 교재와는 73.3%(33문항)가 연계되었는데, 듣기 및 말하기 문항의 경우 EBS 교재에 나온 대화/담화를 재구성하거나 소재, 그림 및 도표 등을 활용한 문항이 15개 출제되었고, 읽기와 쓰기 문항의 경우에는 EBS 교재에서 지문과 도표, 그리고 안내문 등을 활용한 문항이 18개 출제되었다.

‘수능 출제 오류 개선 방안(교육부, ’15.3.31)’을 반영하여 대의 파악과 내용 일치/불일치를 묻는 연계 문항들은 EBS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주제·소재가 유사한 다른 지문을 활용하여 간접 연계로 출제되었다. 고난도 문항으로 제시된 대표적인 문항은 23번(주제추론)과 29번(어법), 그리고 34번(빈칸 추론)으로 예상된다. 수험생들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평이한 난이도의 문항들도 상당수 출제되었으나, 일부 고난도 문항들과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리라 예상되는 추상적인 내용의 지문으로 구성된 몇몇 문항들을 통해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수능 영어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출제경향 특징

1. EBS 교재에서 73.3%(33문항)가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2. 신유형은 없었으나, 일부 고난도 문항들을 통해 절대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나. 난이도

올해 수능 영어 영역의 난이도는 작년 수능 보다는 어려웠지만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쉬웠고, 9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2018학년도 수능 (2017.11 시행)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18.9 시행)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18.6 시행)
2019학년도 수능	어렵다	다소 어렵다	쉽다

다. 세부 출제 경향

1) 듣기 및 말하기

작년 수능 및 올해 6월과 9월에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와 듣기 문항 수는 동일하며(17문항) 유형 또한 그대로 유지되었다. 듣기·말하기 영역의 17개 문항 중, 듣기 문항이 12개, 간접 말하기 문항이 5개 출제되었다. 듣기 문항은 대화나 담화의 목적, 의견, 대화자들의 관계 등에 대한 추론적·종합적 이해를 평가하는 문항이 3개, 그림이나 대화·담화 내용 일치, 5W1H와 같은 사실적 이해를 평가하는 문항이 7개, 그리고 1담화 2문항 한 세트의 복합 문항이 출제되었다. 복합 문항 유형은 1대화·담화 1문항과 달리 두 번 들려주어 수험생의 듣기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간접 말하기 문항은 짧은 대화의 응답 2문항과 긴 대화의 응답 2문항, 담화 응답 1문항이 출제되었다. 복합 문항 유형인 16번과 17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EBS 교재와 연계되어 출제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의 대화와 담화가 문항으로 제시되었다.

2) 어법 및 어휘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는 함축의미 추론 문항이 새로이 29번으로 출제되면서 어휘 문항 없이 어법(밀줄) 문항 1개만 출제되었으나, 올해 수능에서는 작년 수능 및 지난 9월에 치러진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지칭추론 문항 대신 어법, 어휘 문항이 각 1문항씩 출제되었으며, 두 문항 모두 EBS 교재의 지문이 그대로 활용되었다. 유형 면에서는 어법, 어휘 문항 둘 다 밀줄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어법 유형은 전치사의 목적어 형태, 대동사 do vs. be 동사, 대명사의 수, 관계사의 종류, 그리고 병렬구조에 적절한 동사 형태 등 문장 구조에 대한 기본적 이해력을 묻는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어휘 유형은 전체적인 글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문맥에 적절한 어휘를 선택해야 하나 밀줄 친 선택지 어휘의 수준이 대체로 높지 않은 문항으로 출제되었으므로, 연계 교재를 충분히 숙지하여 지문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으리라 예상된다.

3) 읽기 및 쓰기

어법, 어휘 문항을 포함한 읽기·쓰기 영역 전체 28문항 중 순수 읽기 문항이 22개, 간접 쓰기 문항이 6개 출제되었다. 읽기 문항은 대의를 파악하는 문항 유형(목적, 심경변화, 주장, 함축의미, 요지, 주제, 제목 추론)이 7개, 도표와 실용문을 포함하여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문항 유형(내용 일치/불일치)이 4개 출제되었다. 대의 파악과 내용 일치/불일치를 문

는 연계 문항들은 EBS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EBS와 주제·소재가 유사한 다른 지문을 활용하여 연계하였고, 동일한 능력을 측정하는 유사한 문항 유형을 가감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모듈형 원칙에 따라 문항 유형 구성을 유연하게 적용하였다. 이에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는 어휘 문항 대신 29번에 함축의미 추론 문제를 신유형으로 출제하였으나, 9월 모의평가와 이번 수능에서는 지칭추론 문항 대신 함축의미 추론 문항을 대의파악 모듈 문항 위치인 21번에 출제하였다. 빈칸 추론 유형은 빈칸이 ‘단어’에 해당하는 문항 1개(31번), ‘짧은 어구’ 단위에 해당하는 문항 1개(32번), 그리고 ‘긴 어구’나 ‘절’ 단위에 해당하는 문항 2개(33번, 34번)가 출제되었으며, 간접 쓰기 문항은 무관한 문장 유형 1개, 글의 순서 유형 2개, 문장 삽입 유형 2개, 그리고 문단 요약 유형 1개가 출제되었다.

또한, 1지문 2문항 장문독해 유형과 1지문 3문항 장문독해 유형이 각각 한 세트씩 출제되었다. 장문독해 문항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모두 비연계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평이한 난이도의 지문이었다. 1지문 2문항 유형은 6월과 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제목 추론과 어휘 유형으로 구성되었는데, 42번 어휘 문항은 글의 세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졌으리라 예상된다. 1지문 3문항 유형은 평이한 수준의 교훈적 지문이 제시되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해한 수험생들은 해결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예상된다.

문항 유형은 새로운 유형 없이 지난 6월, 9월 모의평가 유형을 거의 그대로 따랐고, EBS 교재에서 16문항(어법, 어휘 문항 제외)이 연계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글감이 고루 출제되었다. 작년 수능에서는 주로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는 빈칸 추론 유형 4문항 중 1문항만 EBS 교재와 연계되어 출제되었으나, 올해 수능에서는 지난 6월, 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빈칸 추론 유형 4문항 중 2문항(31, 32번)이 EBS 교재와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도표 유형은 EBS 교재에 제시된 표의 데이터 정보를 거의 그대로 제시한 후 지문 내용을 응용하는 형태로 출제되었다.

2. 난이도

가. 총평

올해 수능 영어 영역의 난이도는 작년 수능 보다는 어려웠지만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쉬웠고, 9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별력 있는 3점 10문항 중 3문항은 듣기 및 간접 말하기 영역에서, 그리고 7문항은 읽기 및 간접 쓰기 영역에서 출제되었다.

나. 파트별 세부 난이도

1) 듣기 및 말하기

전반적으로 평이했다. 3점으로 배점된 수치 계산을 요구하는 9번과 간접 말하기 유형 13, 15번 문항은 유형 특성상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건에 맞는 구입할 물건을 도표에서 고르는 12번 문항을 포함하여, 그 이외의 문항들은 평이한 수준이었기에 정답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놓치지 않고 들었다면 수험생들이 그리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어법 및 어휘

어법과 어휘 문항은 둘 다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찾는 유형으로 각각 1문항씩 출제되었으며, 두 문항 모두 EBS 교재에서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는 직접 연계로 출제되었다. 29번 어법 문항은 정답이 되는 선택지 2번이 as가 이끄는 부사절에서 대동사 did를 쓰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be 동사 was를 쓰는 것이 맞을지를 묻는 질문인데, 주절에서 부사구가 제일 앞에 나오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어 있는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학생들은 정답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예상된다. 30번 어휘 유형은 글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문맥에 알맞은 어휘를 찾아야 풀 수 있는 문항으로, 기본적인 어휘의 의미를 학습하고 전체 글의 맥락을 파악하는 연습을 꾸준히 한 수험생이라면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읽기 및 쓰기

올해 수능 영어 영역 읽기 및 간접 쓰기 문항들은 전반적으로 작년 수능보다는 어려웠지만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쉬웠고, 9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빈칸 추론 4개 문항 중 직접 연계문항 31번과 32번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었으나, 비연계 문항 33번과 34번은 지문의 난도가 높을 뿐 아니라, 매력적인 선택지들로 인해 수험생들에게 어려웠으리라 예상된다. 또한, 작년 수능에서는 대의파악 모듈의 모든 문항이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으나, 올해에는 목적(18번), 심경변화(19번), 주장(20번), 요지(22번) 문항이 평이했던 반면, 21번 함축의미 추론 문항 및 23번 주제 추론, 24번 제목 추론 문항은 지문의 난도가 높아 수험생들이 쉽게 풀지 못했으리라 예상된다. 간접 쓰기 유형 6문항 중 3문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는 EBS 교재와 16문항(어법, 어휘 문항 제외)이 연계되어 출제되었으며, 수험생들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평이한 문항들도 출제되었으나 일부 고난도 문항들과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내용의 지문으로 구성된 몇몇 문항들을 통해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수능 영어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3. 문항 분석

가. 우수 문항 분석

- 21번: 과학에 있어서 “refining ignorance(무지함을 세련되게 하는 것)”이라는 어구의 의미를 문맥을 통해 추론하는 능력을 묻는 문항이다. 과학자들이 결과에 집착하여 자신이 발견한 것을 널리 알리려는 경향을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 후, 위대한 과학자는 결과보다는 그 다음에 나타날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발견은 가설을 성공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실험이고 새로운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물리학자의 말을 인용한 후, 노벨상 수여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발견은 새로운 영역을 열었다는 공로를 인정한다는 의미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refining ignorance”는 “looking beyond what is known towards what is left unknown(이미 알려진 것을 넘어 미지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향해 바라보는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과학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교훈적으로 제시한 글로 함축의미 추론 유형에 아주 적합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나. 고난도 문항

- 34번: 인류가 새로운 문화적 도구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빈칸으로 묻고 있으며, 빈칸 다음에 제시되는 구체적 사례에 담긴 내용을 추론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이다. 읽는 것을 배울 때 뇌의 시각 체계를 담당하는 부분을 재활용하고 구축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배울 때 모양을 수량으로 전환시키는 연결망을 구축한다는 내용,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는 것만큼이나 기본적인 발명이 인지적 능력을 대단히 변화시킨다는 내용을 통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we can mobilize our old areas in novel ways(우리가 기존의 영역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이다. 빈칸 뒤에 언급된 사례를 통해 지문의 핵심적 내용을 추론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높은 수준의 사고 능력이 필요하여 수험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4. EBS 교재와의 연계성 분석

가. 연계표

문항 번호	유형	EBS 교재 연계 내용
		교재명/쪽수/문항번호(유형)
1	짧은 대화의 응답	수능특강 영어듣기/p97/6번(긴 대화 응답)
2	짧은 대화의 응답	수능완성 영어/p117/10번(언급 유무)
3	목적	수능특강 영어듣기/p178/8번(이유)
4	의견	수능완성 영어/p135/15번(긴 대화 응답)
5	관계	수능특강 영어듣기/p176/3번(목적)
6	그림	수능특강 영어듣기/p195/6번(그림)
7	할 일	수능완성 영어/p118/14번(긴 대화 응답)
8	이유	수능특강 영어듣기/p210/13번(긴 대화 응답)
9	수치	수능특강 영어듣기/p96/2번(긴 대화 응답)
10	언급 유무	수능완성 영어/p117/8번(이유)
11	내용 불일치	수능특강 영어듣기/p200/1번(짧은 대화 응답)
12	도표	수능특강 영어듣기/p74/1번(도표)
13	긴 대화의 응답	수능특강 영어듣기/p85/4번(짧은 대화 응답)
14	긴 대화의 응답	수능특강 영어듣기/p189/5번(관계)
15	상황에 적절한 말	수능완성 영어/p151/7번(할 일)
18	목적	수능완성 영어/p124/27번(실용문 일치)
19	심경변화	수능완성 영어/p98/43-45번(1지문3문항)
20	주장	수능특강 영어/p72/6번(빈칸)
21	함축의미	수능특강 영어/p34/5번(제목)
22	요지	수능특강 영어/p200/22번(삽입)
23	주제	수능완성 영어/p108/29번(어휘)
24	제목	수능특강 영어/p103/4번(요약)
25	도표	수능완성 영어/p27/4번(도표)
26	내용 불일치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p82/5-6번(1지문2문항)
27	실용문	수능특강 영어/p193/9번(실용문 일치)
28	실용문	수능완성 영어/p35/4번(실용문 불일치)
29	어법	수능완성 영어/p95/38번(문장 삽입)
30	어휘	수능완성 영어/p129/37번(순서)
31	빈칸 추론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p110/10번(요약문)
32	빈칸 추론	수능완성 영어/p23/4번(제목)
35	무관한 문장	수능특강 영어/p145/4번(주제)
36	글의 순서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p132/8번(어휘)
38	문장 삽입	수능완성 영어/p159/29번(어휘)

나. 체감 연계도

EBS 연계 교재를 꾸준히 학습한 학생들은 6월과 9월에 치러진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의 연계 정도를 체감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듣기·말하기 유형은 총 17문항 중 15문항이 <수능특강(영어듣기)>(10문항), <수능완성(실전편)>(5문항)에서 소재, 개념, 내용이 활용되어 출제되었고, 읽기·쓰기 유형은 28문항 중 18문항이 <수능특강(영어)>(6문항), <수능특강(영어독해연습)>(3문항), <수능완성>(9문항)에서 지문 및 주제·소재가 활용되어 출제되었다. 그 중에서 어법, 어휘, 빈칸 추론, 간접 쓰기 유형(무관한 문장, 글의 순서, 문장 삽입)의 7문항은 EBS 연계 교재의 지문이 거의 그대로 활용되어 출제되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의 파악과 내용 불일치 유형, 그리고 실용문 등의 문항들은 주제·소재 연계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EBS 연계 교재의 지문을 충실히 이해하고 문장 구조와 어휘를 심도 있게 학습한 수험생들은 변형된 지문에 대해 높은 적응력을 보이며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유형별 세부 분석

(1) 듣기 및 말하기

듣기·말하기 유형 총 17문항 중 15문항이 EBS 교재와 연계되어 출제되었는데, <수능특강(영어듣기)>에서 10문항, <수능완성(실전편)>에서 5문항이 연계되었다. 1번은 <수능특강(영어듣기)> 16강 6번 문항의 소재(차 태워주기)를 제시하여 쉽게 문항을 구성함으로써 시험 초반에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6번 문항은 <수능특강(영어듣기)> 28강 6번 문항에 제시된 그림과 비슷한 배경의 그림을 제시하여 사물의 모양과 무늬를 묻는 방식으로 연계 출제되었다. 말하기 유형으로 출제된 세 문항 중 13번은 <수능특강(영어듣기)> 16강 4번 문항의 약 복용에 관한 대화가, 14번은 <수능특강(영어듣기)> 27강 5번 문항의 소설에 기반을 둔 뮤지컬 공연에 관한 대화가, 15번은 <수능완성(실전편)> 5회 7번 문항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대화가 활용되어 출제되었다.

(2) 대의 파악(목적, 심경변화, 주장, 함축의미 추론, 요지, 주제, 제목)

글의 목적 추론 문항의 지문은 <수능완성(실전편)> 3회 27번의 요리법 대회를 알리는 실용문과 내용상 연관성 있는 지문이었다. 심경변화 추론 문항에서는 <수능완성(실전편)> 1회 43~45번 장문독해(1지문 3문항) 문항의 지문과 유사하게 파도타기 상황을 묘사하는 지문이 제시되었다. 주장 추론 문항의 지문으로는 <수능특강(영어)> 11강 6번 빈칸 추론 문항의 지문과 비슷하게 전쟁의 개념을 소재로 다룬 지문이 제시되었다. 6월과 9월 모평에서 출제된 함축의미 추론 문항의 지문으로는 <수능특강(영어)> 5강 5번 제목 추론 문항의 지문과 비슷하게 과학에 주어진 문제를 다룬 지문이 소재로 활용되었다. 요지 추론 문항의 지문으로는 <수능특강(영어)> Test 2의 22번 문장 삽입 문항의 지문과 비슷하게 정보를 소재로 다룬 지문이 출제되었다. 주제 추론 문항의 지문으로는 <수능완성(실전편)> 2회 29번 어휘 문항의 지문과 유사한 소재인 환경보전 문제를 다룬 지문이 출제되었다. 제목 추론 문항의 지문으로는 <수능특강(영어)> 16강 4번 요약문 문항의 지문과 내용상 비슷하게 사건에 대한 느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룬 지문이 제시되었다.

(3) 도표, 내용 불일치, 실용문

도표 문항에서는 <수능완성(유형편)> 5강 4번의 도표에서 연도와 수치가 일부 변경된 도표가 제시되었고, 지문 내용도 유사하게 출제되었다. 내용 불일치 문항에서는 <수능특강(영어독해연습)> 7강 5~6번 장문 독해(1지문 2문항)에 언급된 작가의 생애에 관한 글이 지문으로 제시되었다. 두 개의 실용문 문항 중 27번에서는 <수능특강(영어)> Test 2의 9번, 그리고 28번 문항에서는 <수능완성(유형편)> 7강 4번과 유사한 내용의 실용문이 제시되었다.

(4) 어법, 어휘

어법 문항은 밑줄 친 부분 중 틀린 것을 고르는 3점 문항으로 출제되었는데, <수능완성(실전편)> 1회 38번 문장 삽입 문항의 지문이 그대로 활용되었다.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찾아내는 유형으로 출제된 어휘 문항도 <수능완성(실전편)> 3회 37번 글의 순서 문항의 지문이 첫 문장을 제외한 상태로 그대로 제시되었다.

(5) 빈칸 추론

작년과 마찬가지로 4개의 빈칸 추론 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연계 문항과 비연계 문항은 각각 2문항이었다. 연계 문항으로 31번 문항에서는 <수능특강(영어독해연습)> 9강 10번 요약문 문항의 지문이 그대로 활용되었고, 32번 문항에서는 <수능완성(유형편)> 4강 4번 제목 추론 문항의 지문이 그대로 활용되었다.

(6) 쓰기(무관한 문장, 글의 순서, 문장 삽입, 요약문)

무관한 문장을 찾는 문항에서는 <수능특강(영어)> 24강 4번 주제 추론 문항의 지문이, 글의 순서를 묻는 2문항 중 36번 문항에서는 <수능특강(영어독해연습)> 11강 8번 어휘 문항의 지문이, 그리고 문장 삽입 유형 2문항 중 38번 문항에서는 <수능완성(실전편)> 5회 29번 어휘 문항의 지문이 그대로 활용되었다.

5. 대표 연계 문항

1) 6번 : <수능특강(영어듣기)> 28강 6번의 그림과 비슷한 배경을 지닌 그림이 제시됨

6번	수능특강(영어듣기) 28강 6번
<p>6.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p> 	<p>06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p> 

2) 22번 : <수능특강(영어)> Test 2의 22번 문장 삽입 유형 지문과 비슷한 소재의 지문이 제시됨

22번	수능특강(영어) Test 2의 22번
<p>2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With the industrial society evolving into an information-based society, the concept of information as a product, a commodity with its own value, has emerged. As a consequence, those people, organizations, and countries that possess the highest-quality information are likely to prosper economically, socially, and politically. Investigations into the economics of information encompass a variety of categories including the costs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ervices; the effects of information on decision making; the savings from effective information acquisition; the effects of information on productivity; and the effects of specific agencies (such as corporate, technical, or medical libraries) on the productivity of organizations. Obviously many of these areas overlap, but it is clear that information has taken on a life of its own outside the medium in which it is contained. Information has become a recognized entity to be measured, evaluated, and priced.</p> <p style="text-align: right;">* entity: 실재(물)</p> <p>① 정보화된 사회일수록 개인 정보 보호가 필요하다. ② 정보의 효율적 교환은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③ 정보 처리의 단순화는 신속한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된다. ④ 정보 기반 사회에서 정보는 독자적 상품 가치를 지닌다. ⑤ 정보 기반 사회에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하다.</p>	<p>22.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p> <p>However, the way in which that information is presented—in particular, whether the emphasis is placed on losses or gains—influences the decision-making process.</p> <p>If we wish to act rationally, we ought to make decisions by weighing the probability and desirability of the various outcomes that would result from deciding one way or the other. (①) The manner in which those outcomes are portrayed should make no difference. (②) The water in a glass that is described as half-full or half-empty will quench our thirst to an equal degree. (③) However, the human mind turns out to be significantly swayed by how potential outcomes are portrayed. (④) Logically speaking, telling someone that the engaging in act X promotes outcome Y, or that not engaging in act X fails to promote outcome Y, provides the same objective information: Y (partly) depends on X. (⑤) Hence, we seem to make judgments about things in the world, not as they are in themselves, but as they are relative to other things.</p>

3) 25번 : <수능완성(유형편)> 5강 4번 도표에서 연도와 수치 정보 일부가 변경되어 제시됨

25번	수능완성(유형편) 5강 4번																																																																																																																
<p>25.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p> <p style="text-align: center;">Top Ten Origin Countries of International Students (School Years 1979-1980 and 2016-2017)</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School Year 1979-1980</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School Year 2016-2017</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Country</th> <th style="text-align: center;">Number</th> <th style="text-align: center;">Country</th> <th style="text-align: center;">Number</th> </tr> </thead> <tbody> <tr><td>Iran</td><td style="text-align: right;">51,000</td><td>China</td><td style="text-align: right;">351,000</td></tr> <tr><td>Taiwan</td><td style="text-align: right;">18,000</td><td>India</td><td style="text-align: right;">186,000</td></tr> <tr><td>Nigeria</td><td style="text-align: right;">16,000</td><td>South Korea</td><td style="text-align: right;">59,000</td></tr> <tr><td>Canada</td><td style="text-align: right;">15,000</td><td>Saudi Arabia</td><td style="text-align: right;">53,000</td></tr> <tr><td>Japan</td><td style="text-align: right;">12,000</td><td>Canada</td><td style="text-align: right;">27,000</td></tr> <tr><td>Hong Kong</td><td style="text-align: right;">10,000</td><td>Vietnam</td><td style="text-align: right;">22,000</td></tr> <tr><td>Venezuela</td><td style="text-align: right;">10,000</td><td>Taiwan</td><td style="text-align: right;">22,000</td></tr> <tr><td>Saudi Arabia</td><td style="text-align: right;">10,000</td><td>Japan</td><td style="text-align: right;">19,000</td></tr> <tr><td>India</td><td style="text-align: right;">9,000</td><td>Mexico</td><td style="text-align: right;">17,000</td></tr> <tr><td>Thailand</td><td style="text-align: right;">7,000</td><td>Brazil</td><td style="text-align: right;">13,000</td></tr> <tr><td>Other countries</td><td style="text-align: right;">129,000</td><td>Other countries</td><td style="text-align: right;">311,000</td></tr> <tr><td>Total</td><td style="text-align: right;">286,000</td><td>Total</td><td style="text-align: right;">1,079,000</td></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 Note: Detail may not add to total shown because of rounding.</p> <p>The tables above show the top ten origin countries and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in U.S.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wo school years, 1979-1980 and 2016-2017. ① The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2016-2017 was over three times larger than the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1979-1980. ② Iran, Taiwan, and Nigeria were the top three origin countrie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1979-1980, among which only Taiwan was included in the list of the top ten origin countries in 2016-2017. ③ The number of students from India was over twenty times larger in 2016-2017 than in 1979-1980, and India ranked higher than China in 2016-2017. ④ South Korea, which was not included among the top ten origin countries in 1979-1980, ranked third in 2016-2017. ⑤ Although the number of students from Japan was larger in 2016-2017 than in 1979-1980, Japan ranked lower in 2016-2017 than in 1979-1980.</p>	School Year 1979-1980		School Year 2016-2017		Country	Number	Country	Number	Iran	51,000	China	351,000	Taiwan	18,000	India	186,000	Nigeria	16,000	South Korea	59,000	Canada	15,000	Saudi Arabia	53,000	Japan	12,000	Canada	27,000	Hong Kong	10,000	Vietnam	22,000	Venezuela	10,000	Taiwan	22,000	Saudi Arabia	10,000	Japan	19,000	India	9,000	Mexico	17,000	Thailand	7,000	Brazil	13,000	Other countries	129,000	Other countries	311,000	Total	286,000	Total	1,079,000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04</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 8049-0025</p> <p>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p> <p style="text-align: center;">Top 10 International Student Countries of Origin</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School Year 1979-80</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School Year 2014-15</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Country</th> <th style="text-align: center;">Number</th> <th style="text-align: center;">Country</th> <th style="text-align: center;">Number</th> </tr> </thead> <tbody> <tr><td>Total</td><td style="text-align: right;">286,000</td><td>Total</td><td style="text-align: right;">975,000</td></tr> <tr><td>Iran</td><td style="text-align: right;">51,000</td><td>China</td><td style="text-align: right;">304,000</td></tr> <tr><td>Taiwan</td><td style="text-align: right;">18,000</td><td>India</td><td style="text-align: right;">133,000</td></tr> <tr><td>Nigeria</td><td style="text-align: right;">16,000</td><td>South Korea</td><td style="text-align: right;">64,000</td></tr> <tr><td>Canada</td><td style="text-align: right;">15,000</td><td>Saudi Arabia</td><td style="text-align: right;">60,000</td></tr> <tr><td>Japan</td><td style="text-align: right;">12,000</td><td>Canada</td><td style="text-align: right;">27,000</td></tr> <tr><td>Hong Kong</td><td style="text-align: right;">10,000</td><td>Brazil</td><td style="text-align: right;">24,000</td></tr> <tr><td>Venezuela</td><td style="text-align: right;">10,000</td><td>Taiwan</td><td style="text-align: right;">21,000</td></tr> <tr><td>Saudi Arabia</td><td style="text-align: right;">10,000</td><td>Japan</td><td style="text-align: right;">19,000</td></tr> <tr><td>India</td><td style="text-align: right;">9,000</td><td>Vietnam</td><td style="text-align: right;">19,000</td></tr> <tr><td>Thailand</td><td style="text-align: right;">7,000</td><td>Mexico</td><td style="text-align: right;">17,000</td></tr> <tr><td>Other countries</td><td style="text-align: right;">129,000</td><td>Other countries</td><td style="text-align: right;">288,000</td></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 Note: Detail may not add to total shown because of rounding.</p> <p>The two tables above show the country-of-origin composition of the U.S. international student population in the school year 1979-1980 and in the school year 2014-2015. ① Iran, which was the top country of origin in 1979-1980, wasn't among the top ten countries of origin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2014-2015, whereas the opposite was true for China. ② Taiwan, Canada, Japan, Saudi Arabia, and India were among the top ten international student countries of origin both in 1979-1980 and in 2014-2015. ③ Between the two school years, the number of students from India increased more than thirteen fold. ④ In 1979-1980, the number of students from Nigeria was larger than that of students from Hong Kong and Thailand combined. ⑤ In 2014-2015, the number of students from South Korea was more than three times larger than that of students from Vietnam.</p>	School Year 1979-80		School Year 2014-15		Country	Number	Country	Number	Total	286,000	Total	975,000	Iran	51,000	China	304,000	Taiwan	18,000	India	133,000	Nigeria	16,000	South Korea	64,000	Canada	15,000	Saudi Arabia	60,000	Japan	12,000	Canada	27,000	Hong Kong	10,000	Brazil	24,000	Venezuela	10,000	Taiwan	21,000	Saudi Arabia	10,000	Japan	19,000	India	9,000	Vietnam	19,000	Thailand	7,000	Mexico	17,000	Other countries	129,000	Other countries	288,000
School Year 1979-1980		School Year 2016-2017																																																																																																															
Country	Number	Country	Number																																																																																																														
Iran	51,000	China	351,000																																																																																																														
Taiwan	18,000	India	186,000																																																																																																														
Nigeria	16,000	South Korea	59,000																																																																																																														
Canada	15,000	Saudi Arabia	53,000																																																																																																														
Japan	12,000	Canada	27,000																																																																																																														
Hong Kong	10,000	Vietnam	22,000																																																																																																														
Venezuela	10,000	Taiwan	22,000																																																																																																														
Saudi Arabia	10,000	Japan	19,000																																																																																																														
India	9,000	Mexico	17,000																																																																																																														
Thailand	7,000	Brazil	13,000																																																																																																														
Other countries	129,000	Other countries	311,000																																																																																																														
Total	286,000	Total	1,079,000																																																																																																														
School Year 1979-80		School Year 2014-15																																																																																																															
Country	Number	Country	Number																																																																																																														
Total	286,000	Total	975,000																																																																																																														
Iran	51,000	China	304,000																																																																																																														
Taiwan	18,000	India	133,000																																																																																																														
Nigeria	16,000	South Korea	64,000																																																																																																														
Canada	15,000	Saudi Arabia	60,000																																																																																																														
Japan	12,000	Canada	27,000																																																																																																														
Hong Kong	10,000	Brazil	24,000																																																																																																														
Venezuela	10,000	Taiwan	21,000																																																																																																														
Saudi Arabia	10,000	Japan	19,000																																																																																																														
India	9,000	Vietnam	19,000																																																																																																														
Thailand	7,000	Mexico	17,000																																																																																																														
Other countries	129,000	Other countries	288,000																																																																																																														

4) 32번 : <수능완성(유형편)> 4강 4번 제목 추론 유형 지문이 그대로 활용되어 빈칸 추론 유형의 문항으로 출제됨

31번	수능완성(유형편) 4강 4번
<p>32. Minorities tend not to have much power or status and may even be dismissed as troublemakers, extremists or simply 'weirdos'. How, then, do they ever have any influence over the majority? The social psychologist Serge Moscovici claims that the answer lies in their <i>behavioural style</i>, i.e. the way _____ . The crucial factor in the success of the suffragette movement was that its supporters were <i>consistent</i> in their views, and this created a considerable degree of social influence. Minorities that are active and organised, who support and defend their position <i>consistently</i>, can create social conflict, doubt and uncertainty among members of the majority, and ultimately this may lead to social change. Such change has often occurred because a minority has converted others to its point of view. Without the influence of minorities, we would have no innovation, no social change. Many of what we now regard as 'major' social movements (e.g. Christianity, trade unionism or feminism) were originally due to the influence of an outspoken minority.</p> <p>* dismiss: 일축하다 ** weirdo: 별난 사람 *** suffragette: 여성 참정권론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the minority gets its point across ② the minority tones down its voice ③ the majority cultivates the minority ④ the majority brings about social change ⑤ the minority cooperates with the majority 	<p>04 ▶ 8049-0020</p> <p>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Minorities tend not to have much power or status and may even be dismissed as troublemakers, extremists or simply 'weirdos'. How, then, do they ever have any influence over the majority? The social psychologist Serge Moscovici claims that the answer lies in their <i>behavioural style</i>, i.e. the way the minority gets its point across. The crucial factor in the success of the suffragette movement was that its proponents were <i>consistent</i> in their views, and this created a considerable degree of social influence. Minorities that are active and organised, who advocate and defend their position <i>consistently</i>, can create social conflict, doubt and uncertainty among members of the majority, and ultimately this may lead to social change. Such change has often occurred because a minority has converted others to its point of view. Without the influence of minorities, we would have no innovation, no social change. Many of what we now regard as 'major' social movements (e.g. Christianity, trade unionism or feminism) were originally due to the influence of an outspoken minority.</p> <p>* weirdo 별난 사람 ** suffragette 여성 참정권론자 *** proponent 지지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Promoting Social Change Through Education ② Consistency: What Matters in Public Relations ③ Minority Rights: The Key to Conflict Prevention ④ How Does the Minority Bring Change to Society? ⑤ What Persuades People to Accept Common Rules?

5) 35번 : <수능특강(영어)> 24강 4번 주제 추론 유형 지문이 그대로 활용되어 무관한 문장 찾기 유형의 문항으로 출제됨

35번	수능특강(영어) 24강 4번
<p>35.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u>없는</u> 문장은?</p> <p>When photography came along in the nineteenth century, painting was put in crisis. The photograph, it seemed, did the work of imitating nature better than the painter ever could.</p> <p>① Some painters made practical use of the invention. ② There were Impressionist painters who used a photograph in place of the model or landscape they were painting. ③ But by and large, the photograph was a challenge to painting and was one cause of painting's moving away from direct representation and reproduction to the abstract painting of the twentieth century. ④ Therefore, the painters of that century put more focus on expressing nature, people, and cities as they were in reality. ⑤ Since photographs did such a good job of representing things as they existed in the world, painters were freed to look inward and represent things as they were in their imagination, rendering emotion in the color, volume, line, and spatial configurations native to the painter's art.</p> <p>* render: 표현하다 ** configuration: 배치</p>	<p>04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When photography came along in the nineteenth century, painting was put in crisis. The photograph, it seemed, did the work of imitating nature better than the painter ever could. Some painters made pragmatic use of the invention. There were Impressionist painters who used a photograph in place of the model or landscape they were painting. But by and large, the photograph was a challenge to painting and was one cause of painting's moving away from direct representation and reproduction to the abstract painting of the twentieth century. Since photographs did such a good job of representing things as they existed in the world, painters were freed to look inward and represent things as they were in their imagination, rendering emotion in the color, volume, line, and spatial configurations native to the painter's art.</p> <p>* render 표현하다</p> <p>① the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of visual arts ② the effect of photography's arrival on painting ③ the role of photographers in representing reality ④ reasons photography wasn't treated as a real art form ⑤ the danger of manipulating images through photography</p>

6) 38번 : <수능완성(실전편)> 5회 29번 어휘 유형 지문이 그대로 활용되어 문장 삽입 유형의 문항으로 출제됨

38번	수능완성(실전편) 5회 29번
<p>[38~39]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p> <p>38.</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The advent of literacy and the creation of handwritten scrolls and, eventually, handwritten books strengthened the ability of large and complex ideas to spread with high fidelity.</p> </div> <p>The printing press boosted the power of ideas to copy themselves. Prior to low-cost printing, ideas could and did spread by word of mouth. While this was tremendously powerful, it limited the complexity of the ideas that could be propagated to those that a single person could remember. (①) It also added a certain amount of guaranteed error. (②) The spread of ideas by word of mouth was equivalent to a game of telephone on a global scale. (③) But the incredible amount of time required to copy a scroll or book by hand limited the speed with which information could spread this way. (④) A well-trained monk could transcribe around four pages of text per day. (⑤) A printing press could copy information thousands of times faster, allowing knowledge to spread far more quickly, with full fidelity, than ever before.</p> <p>* fidelity: 충실 ** propagate: 전파하다</p>	<p>29 ▶ 8049-0304</p> <p>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The printing press boosted the power of ideas to copy themselves. Prior to low-cost printing, ideas could and did spread by word of mouth. While this was tremendously powerful, it ① <u>limited</u> the complexity of the ideas that could be propagated to those that a single person could remember. It also added a certain amount of guaranteed ② <u>error</u>. The spread of ideas by word of mouth was equivalent to a game of telephone on a global scale. The advent of literacy and the creation of handwritten scrolls and, eventually, handwritten books ③ <u>weakened</u> the ability of large and complex ideas to spread with high fidelity. But the incredible amount of time required to copy a scroll or book by hand limited the ④ <u>speed</u> with which information could spread this way. A well-trained monk could transcribe around four pages of text per day. A printing press could copy information thousands of times faster, ⑤ <u>allowing</u> knowledge to spread far more quickly, with full fidelity, than ever before.</p> <p>*propagate 전파하다 **fidelity 정확도, 충실도</p>